

11년 이어온 신진작가 플랫폼 ... '마중물 2026'에서 만나는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 2026. 6. 20. 22:34

신진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조명해 온 김리아갤러리의 대표 기획전 '마중물 2026'이 오는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2014년 시작된 '마중물'은 지난 11년간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 차세대 작가들을 소개하며, 신진작가 발굴과 지원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마중물 2026 포스터 전시 알림 포스터

'마중물'은 단순한 신인 작가 소개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뜻하는 전시명처럼, 작가들에게는 창작 여정의 전환점이자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고 관객과 컬렉터에게는 새로운 감각과 시선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올해 전시에는 김지호, 김지희, 박재은, 승지원, 염지애, 이강연, 이성은, 이시현, 이현도, 크리스틴 조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조형 언어와 작업 방식을 바탕으로 개인적 경험과 기억, 사회적 풍경, 환경적 문제의식 등을 탐구하며 동시대 예술이 포착하는 다층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마중물 2026'은 완결된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과 탐색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작품 속에는 작가들이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 가는 과정의 흔적이 담겨 있으며, 서로 다른 관심사와 매체적 실험은 오늘날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드러낸다.

김리아갤러리는 지난 11년간 '마중물'을 통해 신진작가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한편, 예술가와 관객, 시장을 연결하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왔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이 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세대적 감각을 조망하는 자리로서, 한국 미술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작가들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출처: 아트코리아방송]

<https://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98>